



# 한국 정파언론 환경의 특수성은 보수와 진보 수용자의 매체 태도와 이용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가?

## 적대적 및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이 매체 신뢰 와 이용에 미치는 영향

**현기득** 이키타 국제대학 글로벌 스테디즈 프로그램 부교수\*

**서미혜**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한국 정파언론 환경의 특징을 진보매체에 대한 보수매체의 구조적 비교우위와 매체 비판 담론장에서 보수매체에 집중된 비판으로 보고, 이러한 특수성이 보수적 수용자와 진보적 수용자의 우호적 및 적대적 정파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규범적 평가, 정파매체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했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진보적 수용자는 보수적 수용자에 비해 자신의 정치성향에 반하는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신뢰도는 더 낮게 평가했다. 이 두 요인과 적대적 매체 이용 간의 부적 관계 또한 진보적 집단에서 더 크고 일관되게 나타났다. 우호적 매체 태도와 이용에서도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진보적 수용자들의 경우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을 크게 지각하고 신뢰할수록 우호적 매체를 많이 이용했지만, 보수 집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특수한 정파언론 환경에서 진보-보수 수용자 집단의 언론 태도는 상이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이는 정파매체의 선택적 노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정파언론, 정파적 수용자, 언론 신뢰도, 적대적 매체 지각, 선택적 노출

---

\* hyun@aiu.ac.jp

\*\* mhseo@skku.edu, 교신저자

# 1. 서론

정치이념성향에 있어 대립적 경쟁 관계에 있는 언론매체로 구성되는 정파적 언론환경에서, 뉴스 이용자의 매체 정파성 지각은 해당 매체의 평가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sup> 정파적 수용자는 자신의 정치성향과 매체 보도 성향 사이의 일치 여부에 따라 해당 매체의 공정성과 정확성 등을 차별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Arceneaux, Johnson, & Murphy, 2012; Coe et al., 2008), 선택적으로 이용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다(Garrett, & Stroud, 2014; Goldman & Mutz, 2011; Iyengar & Hahn, 2009; Stroud, 2011). 그러나 미국에서 주로 연구된 정파 언론에 대한 태도와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한국에서도 확인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의 정파언론 환경은 객관주의 모델을 추구해 온 미국은 물론, 정파언론 전통이 남아 있는 서유럽 국가와도 구별되는 구조적, 문화적 특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 특수성으로 우선 언론시장과 공론장에서 통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라고 여겨지는 매체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진보매체에 대한 보수매체의 우위가 실재하는 것인지 허상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신문 판매량, 종합편성채널 운영 여부 등의 지표를 비교할 때, 언론시장에서 보수매체는 진보매체 보다 분명 우위에 있다. 또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근거로 보수매체가 여론 및 의제 형성 과정에서 진보매체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도 나름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정파언론 구조의 비대칭성은 뉴스 수용자의 정치성향이 진보나 보수냐에 따라 이들이 정파매체 지각과 평가, 이용을 다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매체 편향성이나 정파성 지각을 정파적 수용자의 내·외집단 구분에 따른 집단 간 현상으로 파악한 연구에 따르면 정파적 수용자는 외집단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 더 큰 적대적 편향성을 지각한다(Arpan & Raney, 2003; Ariyanto, Hornsey, & Gallois, 2007). 아울러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경쟁 관계에 있는 외집단에 비해 사회적으로 소수거나 열세라고 느낄 때 적대적 정파성 지각은 더 커진다

---

1) 언론의 정파성은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보수매체로,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를 진보매체로 분류했다. 언론의 정파성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개념이기 때문에(Hallin & Mancini, 2004) 이와 같은 구분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뉴스 논조를 통해 드러나는 개별 매체의 정파성의 유형이나 강도가 아닌 이들 매체에 대한 뉴스 수용자의 정파성 지각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따랐다. 통념적인 보수-진보 언론 구분이 뉴스 수용자의 매체 정파성 지각과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용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체의 정파성을 구분하고, 다양한 쟁점 보도에 있어 두 정파매체 집단 간의 논조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정파성 분류에 참고했다(예, 김경희·노기영, 2011; 이건호·고홍석, 2009; 최현주, 2010).

(Hartman & Tanis, 2013). 따라서 한국의 경우, 보수매체의 실질적인 또는 통념적인 우월적 지위 때문에 보수적 수용자들에 비해 진보적 수용자들이 적대적-우호적 정파매체의 정파성의 차이를 더 크게 지각하고, 지각된 매체 정파성을 근거로 매체를 평가하고 정파매체에 대한 선택적 노출 행위를 결정하려는 동기 또한 더 클 수 있다.

진보-보수 집단 사이의 정파매체 태도와 이용의 차이는 매체평가를 위한 정보 획득 구조의 불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진보층(liberals)과 비교할 때, 보수층(conservatives)은 언론의 적대적 편향성은 더 크게 느끼고(Hoffner & Rehkoff, 2011; Oh, Park, & Wanta, 2011) 신뢰도는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Jones, 2004; Lee, 2005). 두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는 매체평가를 위한 정보 단서(cue)나 메시지의 가용성(availa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의 차이로 설명된다. 왓츠, 돔크, 샤그리고 팬(Watts, Domke, Shah, & Fan, 1999)은 미국 주류언론의 진보 편향성(liberal media bias) 비판이 보수 편향성(conservative media bias) 비판 보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유를, 언론의 실제 편향과는 무관한, 보수 여론지도자들의 주류언론을 겨냥한 진보편향 비판 공세에서 찾았다. 이들의 연구는 정파매체에 대한 수용자 태도의 설명을 위해서도 수용자가 기사를 통해 발현된다고 믿는 메시지의 편향성뿐만 아니라, 메시지 밖에서 일어나는 정파언론에 대한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이른바 '조중동' 담론이나 과거 '안티조선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보성향의 정치인, 시민단체, 매체가 주도하는 보수언론을 겨냥한 비판이 보수층의 진보언론 비판보다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매체 비판이 매체비평 담론 공간에서 더 활발하게 유통될 때, 매체 정파성 지각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가용성과 접근성에 있어 진보 수용자는 보수 수용자 보다 유리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 정파언론 환경의 구조적, 담론적 특수성 때문에 정파성 지각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단서 습득의 기회와 매체 정파성을 매체평가와 이용행위로 연결하는 동기가 보수-진보 수용자 집단에서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이는 적대적-우호적 정파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뿐만 아니라 이 지각의 후속 효과라 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정파매체에 대한 선택적 노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우호적 및 적대적 정파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신뢰도 평가, 매체 이용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수용자 사이에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를 볼 때(Arceneaux et al., 2012; Coe et al., 2008) 보수 또는 진보라는 개인의 정치성향의 방향과 무관하게, 정파적 수용자는 우호적 매체보다 적대적 매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정파적 편향성을 인식하고 부정적 평가를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지각된 매체 정파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매체 선택을 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기본적 추론에서 한 발 더 나가, 한국 정파언론의 특수성 때문에 두 정파 수용자 집단 사이에는 매체 태도와 이용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적대적-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 선택적 노출의 관계가 보수 수용자에 비해 진보 수용자에게서 더 강하고 일관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했다.

## 2. 이론적 배경

### 1) 매체 정파성 지각과 매체평가

뉴스 이용자의 언론 및 뉴스 기사에 대한 정파성 및 편향성 지각은 적대적 매체 지각(hostile media perception) 연구 전통에서 집중적으로 탐구되어왔다. 적대적 매체 지각은 논쟁적 사안에 대해 강한 태도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중립적인 기사가 자기 입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편향되었다고 믿는 현상을 가리킨다(Vallone, Ross, & Lepper, 1985). 초기 연구들은 주로 중립적으로 조작된 기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적대적 매체 지각을 검증했지만, 후속연구들은 특정 기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 추상화된 언론 일반에 대해서도 적대적 매체 지각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여론조사에 바탕을 둔 이들 연구에서, 개인의 정치성향은 보수-진보로 구분한 정치이념이나(Barnidge et al., 2017)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지지(Hoffner & Rehkoff, 2011) 등의 방식으로 측정되었는데, 정치성향이 뚜렷하거나 강할수록 적대적 매체 지각이 크게 나타났다.

보다 최근에는 정파적 논조가 뚜렷한 기사나 매체에 대한 편향성 지각으로까지 연구가 확장되었다. 상대적 적대적 매체 지각(relative hostile media perception)으로 명명된 이 현상은 정파적 수용자는 본인 입장에 불리하거나 부정적 논조를 담은 기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하게 느끼고, 유리하거나 긍정적으로 작성된 뉴스에 대해서는 덜 유리하거나 덜 편향되게 느낀다고 예측한다. 건더, 크리스텐, 리브하트와 차이(Gunther, Christen, Liebhart, & Chia) 등은 실험을 통해 편향적으로 작성된 기사에 대해 상호 대립하는 정파적 수용자가 느끼는 편향성의 '상대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Gunther, Christen, Liebhart, & Chia, 2001; Gunther, Edgerly, Akin, & Broesch, 2012).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강조되는 문화에서 특정 매체에 대한 정파성 및 편향성 인식은 해당 매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적대적 매체 지각과 언론

신뢰도 평가 사이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Choi, Yang, & Chang, 2009; Tsfati & Cohen, 2005). 그러나 정파언론 환경에서 매체 정파성 지각과 평가의 관계는 더 복잡해 보인다. 상대적 적대적 매체 지각에 바탕을 둔 연구들은 정파적 수용자들의 경우 우호적 매체 보다 적대적 매체의 정확성, 신뢰도, 공정성 등을 더 낮게 평가한다고 보고했다(Arceneaux et al., 2012; Coe et al., 2008).<sup>2)</sup> 반면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에 수집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이종혁(2015)은 응답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한다고 여기는 매체보다 중도적이라고 판단한 매체의 대신 보도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즉 정파적 수용자조차도 공정성 측면에선 우호적 매체 보다 중도적 매체를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호적 매체와 적대적 매체의 비교로 한정할 때는 응답자들은 여전히 적대적 매체에 비해 우호적 매체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다룬 가상 기사를 자극물로 이용한 김정모와 이승수(2018)의 실험연구에서도 피험자들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조작된 기사의 출처를 중도매체라고 추정할 때 해당 기사의 신뢰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기사 출처를 적대적 매체로 판단할 때보다 우호적 매체로 추정할 때 기사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적대적 정파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은 해당 매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지만,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해당 매체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도 등의 규범적 평가와의 관계는 더 탐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2) 매체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와 선택적 노출

다매체 정파언론 환경에서 특정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은 해당 매체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거나 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선택적 노출 연구가 밝혔듯이 정파적 뉴스 이용자는 자신의 정치성향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논조를 보이는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Iyengar & Hahn, 2009; Stroud, 2011). 그러나 선택적 노출이 특정 매체의 정파성 지각에 따른 의도적 행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상대적 적대적 매체 지각 연구가 시사하듯이, 정파적 수용자들이 자신의 정치지향과 유사한 매체를 선택하는 이유는 매체가 본인의 이념이나 정파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해당 매

---

2) 적대적 매체 지각 연구에서 언론의 정파성과 편향성, 공정성과 같은 규범적 평가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왔다. 일군의 연구들은 수용자들이 기사나 매체로부터 지각하는 보수, 진보와 같은 정파성이나(Barnidge et al., 2017), 논쟁의 한쪽 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편향성을(Gunther et al., 2012) 기준으로 적대적 매체 지각을 측정했다. 반면 또 다른 일단의 연구들은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 평가적 요인에 대한 지각을 섞어서(Arceneaux et al., 2012; Coe et al., 2008) 적대적 매체 지각을 측정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파성과 매체평가를 구분하여 분석했다. 정파언론 환경에서 매체 정파성과 공정성이나 신뢰도 같은 규범적 평가와의 관계는 지각의 대상이 우호적이나 적대적 매체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체를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믿는 지각 편향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 노출과 편향성 지각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택적 노출은 대체로 언론 일반에 대한 적대적 지각이나 부정적 평가를 감소시킨다. 알세노 등(Arceneaux et al., 2012)은 피험자들이 적대적 매체와 우호적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조작한 실험을 통해, 우호적 매체를 선택할수록 언론 전반에 대한 적대적 매체 지각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바니지 등(Barnidge et al., 2017)은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파적 수용자들은 언론 일반 보다 자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선택적 노출이 언론 전반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우호적-적대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이 이들 매체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한다. 반면 골드만과 머츠(Goldman & Mutz, 2011)의 연구는 매체 선택과 매체 정파성 지각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했다. 11개 국가에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들은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뉴스 매체가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반하기보다는 비슷하다고 믿는 경향을 발견했다. 주목할 점은 ‘우호적(friendly)’ 매체 현상이라고 명명된 이 현상이 강한 정파언론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매체 정파성이 강한 한국에서도 정파적 수용자의 경우,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은 해당 매체를 선택하는 근거로, 반대로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은 해당 매체를 멀리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매체의 정파성이 아닌 신뢰도로 대표되는 매체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이용과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매체에 대한 신뢰는 매체 이용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맺는다(Kiousis, 2001; Rimmer & Weaver, 1987; Tsfaty & Cappella, 2003). 츠파티와 카펠라(Tsfaty & Cappella, 2003)는 언론 신뢰와 이용의 관계를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뉴스 이용자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선별하는데, 매체에 대한 신뢰가 매체의 유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그들의 연구는 매체 이용자가 주류언론(mainstream media)을 불신할수록 신문이나 TV뉴스 같은 주류매체를 덜 이용하고, 반면 라디오 정치토론 프로그램(political talk radio)이나 인터넷 같은 대안매체는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찾아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할 때 우호적, 적대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은 매체 신뢰도 평가를 통해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 3) 이용자의 정파성에 따른 매체 태도와 이용의 차이

기존 연구들은 뉴스 수용자의 정파성 유무와 그 강도뿐만 아니라 정파성의 방향 또한 매체에 대한 태도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보수적 유권자, 공화당 지지층과 진보적 유권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언론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보수적,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진보적, 민주당 지지자보다 언론에 대해 더 강한 적대적 매체 지각(Hoffner & Rehkoff, 2011; Oh, Park, & Wanta, 2011)과 제삼자 지각을 하며(Banning, 2006; Hoffner & Rehkoff, 2011), 언론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은 경향이 있다(Jones, 2004; Lee, 2005). 매체 선택에 있어서도 보수적 이용자는 진보적 이용자보다 라디오 정치토론 프로그램 같은 비주류 매체를 더 자주 이용하기도 한다(Tsfati & Cappella, 2003). 보수적 이용자는 또한 자신의 정파성에 반하는 기사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진보적 이용자는 정파성과 일치하는 기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Garrett & Stroud, 2014).

수용자의 정파성의 방향에 따른 매체 지각, 평가, 이용의 차이를 확인한 이러한 연구들은 한 사회의 언론구조와 문화가 편향성 지각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전반적 태도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파성 지각과 신뢰를 포함한 언론 관련 태도는 편향된 수용자가 뉴스에서 찾아내는 편향성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정파매체간의 역관계, 그리고 언론에 대한 비판 및 비평 같은 뉴스 메시지 외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라드(Ladd, 2011)는 언론에 대한 태도는 여타 정치 사안이나 쟁점에 대한 의견 및 태도 형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그의 연구는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언론의 편향성을 비판하거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때, 지지자들 또한 지도자가 제공한 메시지를 인지적 지름길(shortcut)로 삼아 언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파적 수용자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여론지도자가 제시하는 언론 비판 및 평가와 관련된 정보단서나 메시지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와츠 등(Watts et al., 1999)은 미국 주류언론에 대한 보수층의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보수 여론지도층의 언론을 겨냥한 집요한 '진보 편향' 공세를 꼽는다. 미국 대선을 배경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은 내용분석을 통해 미 언론이 경쟁 후보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도했음을 확인했다. 중립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캠페인 기간 동안 공화당 후보 측과 보수 정치평론가들은 언론의 진보 편향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공화당 후보 지지자들이 이런 비판에 동조했음을 대선 보도와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물론 이들의 연구는 정파매체가 아닌 추상화된 주류언론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파매체에 대한 지각과 평가에 바로 적용하기

는 어렵지만, 여론지도자들과 언론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언론 편향성이나 신뢰도에 대한 평가적 메시지가 정파적 수용자의 언론 지각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 한국 정파언론 환경의 특징과 정파매체 태도와 이용

그렇다면 한국 유권자들의 매체 정파성 지각, 평가,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 언론의 정파적 구조 그리고 매체비판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언론시장과 공론장에서 보수매체의 진보매체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들 수 있다. 물론 신문 판매량이나 TV보도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수언론의 시장지배가 공론장의 우위로 이어지는가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제시하듯이(Ladd, 2011; Watts et al., 1999) 언론에 대한 태도는 언론의 실제 편향성 또는 영향력 못지않게, 언론 평가 관련 정보단서나 메시지가 대립 관계에 있는 정파적 수용자들에게 얼마나 인지적으로 접근가능하며(accessible), 이들이 지닌 매체 관련 스키마에 얼마나 잘 조응하는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보수매체에 대한 공격 비판이 진보언론 비판의 목소리보다 큰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조중동’으로 지칭되는 보수언론의 정파적, 이념적 편향성,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은 진보성향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렇게도 보수매체에 대한 비판이 진보매체 비판보다 우세한지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매체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주도하는 행위자를 정치지도자, 시민단체, 언론매체 등의 여론주도층이라고 볼 때, 보수매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클 것이라는 추정은 근거가 있어 보인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 본격화한 진보-보수 매체의 분화와 갈등의 중심에 진보정권과 보수매체의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강명구, 2004). 양자 간의 대립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수매체의 적대적 정파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당시 정부의 언론개혁 시도에 보수매체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보수매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담은 정보단서나 메시지가 진보진영의 정치인과 매체를 통해 공중에 활발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일부 진보성향 여론지도자들이 ‘조중동’, ‘수구언론’, ‘족벌언론’ 등의 명칭을 보수매체 비난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남시욱, 2009). 둘째, 시민사회의 언론 감시 활동 또한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주도해 왔고, ‘안티조선운동’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체들의 주요 비판 대상이 보수매체라는 점도(김수정, 2016) 보수매체 비판이 더 활발하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sup>3)</sup> 마지막으로 진보매체가 보수매체에 비해 경쟁 정파매체 비판

3) 대표적 언론 감시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웹사이트(<http://www.ccdm.or.kr/xe/>)에 올라오는 ‘신문모니



에 더 적극적이거나 공세적이라는 관찰도 있다. 창간 때부터 여론매체부를 설치한 한겨레가 언론계의 매체비평을 선도했으며, 진보-보수 매체 간 상호비판 또한 보수매체를 겨냥한 한겨레의 2001년 ‘심층해부 언론권력’ 기획기사 시리즈 이후 심화 되었다는 지적이 그 예이다(남시욱, 2009).<sup>4)</sup> 종합하자면 보수언론에 더 집중된 비판은 관련 메시지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보수적 수용자에 비해 진보적 수용자가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을 더 크게 지각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수매체의, 실재하거나 통념적인, 비교우위는 진보적 수용자가 적대적 매체에 대해 더 강한 정파성을 지각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추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나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 등을 바탕으로, 적대적 매체 지각을 내·외집단 구분에 따른 집단 간 현상으로 설명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김경모·이승수·김상정, 2016; Hartmann & Tanis, 2013; Reid, 2012).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정체성을 준거로 자신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내집단, 그리고 이 내집단과 경쟁 관계에 있는 외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정체성 판단이 적대적 매체 지각을 촉발하거나 증폭한다고 주장한다. 적대적 매체 지각을 집단 간 현상으로 파악할 때, 정파적 수용자들은 기사에 포함된 내·외집단 구분을 활성화하는 단서를 근거로 해당 기사의 편향성의 방향을 판단한다. 즉 독립적 기사 안에 인용된 기사의 출처(source)가 외집단일 때는 적대적 편향성을, 반대로 내집단일 경우에는 우호적 편향성을 지각한다는 것이다(Reid, 2012). 아울러 정파적 수용자는 개별 기사에 포함된 출처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도 내·외집단으로 구분하고, 외집단으로 판단하거나 추정한 매체가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 더 큰 적대적 편향성을 지각하기도 한다(김경모 등, 2016; Ariyanto et al., 2007; Arpan & Raney, 2003; Baum & Gussin, 2007).

하트만과 타니스(Hartman & Tanis, 2013)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대적 매체 지각은 내집단에 대한 동일감과 더불어 내집단이 외집단과 비교할 때 사회적 역관계에서 열세에 있다고 믿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낙태 찬반논쟁 관련 기사를 자극물로 한 이들의 연구에서 적대적 매체 지각은 피험자가 낙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에 소속감을 크게 느낄수록,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 대립하는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믿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

터와 ‘방송모니터’ 활동만 일별해도 비판의 초점이 보수매체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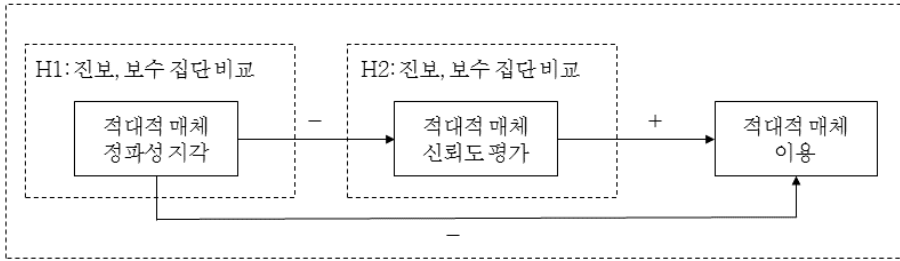
4) 진보매체가 보수매체에 비해 상대 정파매체 비평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추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자료 수집 전 일 년 동안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실린 상호비판 기사의 빈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겨레가 총 92개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논조나 수행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반면, 조선일보의 한겨레 비판은 네 개 기사에 그쳤다.

다. 즉 적대적 매체 지각은 집단 동질감(group identification)과 함께 집단의 상대적 지위(group status)에 의해서도 지각의 정도가 조절된다는 것이다. 상대적 지위 개념을 정파적 수용자들이 뉴스 매체 자체를 내·외집단으로 구분한다는 선행연구(Ariyanto et al., 2007; Arpan & Raney, 2003; Baum & Gussin, 2007)와 연결하면,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 통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보수언론에 대한 태도와 열세에 놓여 있다고 여겨지는 진보언론에 대한 태도에도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 3. 연구가설과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보수-진보 유권자는 공통적으로 그들이 외집단으로 판단한 정파매체에 대해 적대적 정파성을 지각하고, 이런 지각이 클수록 적대적 매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시장과 공론장에서 보수매체의, 실질적인 또는 적어도 통념적인, 비교우위와 보수매체에 보다 집중된 공적 비판을 고려할 때 진보 수용자가 보수 수용자에 비해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을 더 크게 지각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 적대적 매체 기피 현상 또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 H1: 진보 수용자는 보수 수용자에 비해 적대적 매체로부터 자신의 정치성향과 반대되는 정파성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다.
- H2: 진보 수용자는 보수 수용자에 비해 적대적 매체의 신뢰도를 더 낮게 평가할 것이다.
- H3: (a)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매체 신뢰도가 낮아지고 (b)적대적 매체를 덜 이용할 것이다. 또한 (c)적대적 매체에 대한 매체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적대적 매체 이용을 적게 할 것이다.
- H4: 적대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신뢰도 평가의 부적 관계, 적대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적대적 매체 이용간 부적 관계 그리고 적대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와 이용 사이의 정적 관계는 보수 수용자보다 진보 수용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H3: 적대적 매체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와 이용간 관계 검증  
H4: 적대적 매체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와 이용간 관계의 진보, 보수 집단 비교

그림 1. 연구가설 정리

적대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신뢰도 평가 및 이용 사이의 관계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우호적 매체의 이념성 지각과 해당 매체에 대한 평가 및 이용의 관계를 직접 탐구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세 가지 경쟁하는 이론적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선택적 노출의 관점에서 볼 때, 정파적 뉴스 이용자는 자신과 우호적 매체 간의 정치성향의 일치를 이유로 해당 매체를 선택할 수 있다. 바움과 구신(Baum & Gussin, 2007)은 실험연구에서 동일한 미국 대선 관련 기사의 출처를 각각 보수와 진보성향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폭스 뉴스(Fox News)와 시엔엔(CNN)으로 다르게 조작했을 때, 피험자들이 이들 매체의 정파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사의 편향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개별 매체의 정파성에 대한 평판이나 통념이 개별 기사의 편향성 지각 판단을 위한 휴리스틱으로 작용함을 밝힌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특정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지각은 선택적 노출을 위한 휴리스틱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호적 매체에 대해 느끼는 정파적 일치감은 해당 매체 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매체 신뢰와 같은 긍정적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매체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각된 매체의 편향성이 우호적이나 적대적이나와는 무관하게, 정파성의 지각만으로도 해당 매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적 적대적 매체 지각 연구가 암시하듯이 정파적 뉴스 이용자의 경우 우호적 매체가 적대적 매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공정하거나 객관적이라고 믿을 수 있고, 그러한 오지각에 기반해 우호적 매체를 선호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매체인 폭스 뉴스가 “공정하고 균형 잡힌(fair and balanced)” 뉴스를 오랜 기간 자사의 신조로 내세웠던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정파매체와 수용자 모두 자기 입장을 정파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뉴스 이용자도 우호적 매체 보다 중도적이라고 판단한 매체의 공정성을 더 높게 판단했다

고 보고한 선행연구(김경모·이승수, 2018; 이종혁, 2015)도 이러한 추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경우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은 매체 신뢰나 이용과 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매체에 대한 태도와 이용과 유사한 양상으로 우호적 매체에 대한 태도와 이용에 있어서도 진보적 수용자와 보수적 수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수언론에 집중된 비판의 결과로 진보와 보수 유권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진보적'이라는 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수적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매체를 보수적이라고 판단할 때, 매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더 나가 해당 매체를 멀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매체를 겨냥한 비판적 정보단서가 적기 때문에, 진보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진보적'이라는 지각은 부정적 평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매체 선택을 위한 휴리스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언론 일반에 대한 적대적 매체 지각은 편향된 언론의 부정적 영향력을 교정하려는 동기를 높이고 이는 정치토론이나 참여 같은 정치적 행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Rojas, 2010). 진보적 수용자의 경우 보수매체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적대적 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행동 동기가 보수 수용자에 비해 더 높고, 이는 정치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호적 매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라는 매체 이용행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충하는 가능성 때문에,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신뢰도 평가, 이용의 관계는 연구문제로 제시했다.

- RQ1: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에 있어서, 진보 수용자와 보수 수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 RQ2: 우호적 매체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있어서, 진보 수용자와 보수 수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 RQ3: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신뢰도 평가, 그리고 매체 이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RQ4: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 매체 이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수 수용자와 진보 수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 4. 연구방법

###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4월 초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표본은 온라인 설문 전문회사의 패널을 모집단으로 센서스에 바탕을 둔 할당표집을 통해 추출했다. 총 표본은 만 18세 이상의 한국 성인

1733명이었으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보수나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고 한 응답자만으로 분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최종 연구표본은 1176명으로 구성되었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26명(36.2%),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50명(63.8%)으로 표본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응답자에 치우쳐 있었다. 최종표본의 남녀 비율은 고르게 분포하였으며(52.2% 남성), 평균 연령은 약 43세(평균 = 43.10, 표준편차 = 12.86)였다. 58.3%의 응답자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육을 마쳤고, 월 기준 가계 중위 소득은 400만원에서 499만원사이였다.

## 2) 변인의 측정

### (1) 적대적 매체 정파성 지각

적대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 변인은 보수매체와 진보매체의 정파성 지각 변인을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우선, 보수매체의 정파성 지각 변인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논조를 7점 척도(1=매우 보수적; 7=매우 진보적)에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축약형 척도로 만들었다(평균 = 2.42, 표준편차 = 1.22,  $\alpha = .89$ ). 마찬가지로 진보적 매체의 정파성은 통상적으로 진보적 매체로 평가되는 한겨레,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의 논조를 응답자가 보수-진보의 7점 척도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 측정한 후 평균을 이용해 축약형 척도로 만들었다(평균 = 4.87, 표준편차 = 1.19,  $\alpha = .76$ ).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변인은 위에서 설명한 보수적, 진보적 매체의 정파성 척도를 바탕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매체의 이념적 성향을 측정한 것과 동일한 7점 척도(1=매우 보수적, 7=매우 진보적)에서 본인이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는 진보적 매체(즉, 보수적 응답자의 입장에서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을, 본인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경우는 보수적 매체(즉, 진보적 응답자 입장에서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자료를 이용해, 적대적 매체 정파성 지각이라는 변인을 만들고 이후 분석에 사용하였다(평균 = 3.20, 표준편차 = 1.83).

### (2) 우호적 매체 정파성 지각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 변인은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즉, 적대적 매체 정파성 지각 변인을 만들 때 사용한 보수적 매체의 지각된 정파성과 진보적 매체의 지각된 정파성 척도를 바탕으로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 변인을 만들었다. 단,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의 경우와는 반대로 연구 참여자가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본

인의 정치성향과 같은 보수매체의 정파성 수치를 이용했고, 진보적 응답자의 경우는 진보매체의 정파성 수치를 이용해 우호적 매체 정파성 지각이라는 변인을 만들어 이후 분석에 사용했다(평균 = 4.09, 표준편차 = 1.47).

### (3) 적대적 매체 신뢰도 평가

적대적 매체에 대한 신뢰도 평가 척도를 만들기 위해, 우선 보수적 매체의 신뢰도를 7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를 이용해 다음의 세 항목으로 측정했다. 즉, 보수언론의 선거보도는 '공정하다', '정확하다', '신뢰할 수 있다'의 세 항목에 대한 응답을 평균해 보수언론의 신뢰도 평가라는 축약형 척도를 만들었다(평균 = 2.77, 표준편차 = 1.45,  $\alpha = .96$ ). 진보언론의 신뢰도 평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축약형 척도로 만들었다(평균 = 3.60, 표준편차 = 1.28,  $\alpha = .95$ ). 이후 자신을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진보매체의 신뢰도 척도의 값을 이용하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진보적으로 응답한 경우, 보수매체의 신뢰도 척도 값을 이용해 적대적 매체 신뢰도 평가라는 척도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했다(평균 = 2.59, 표준편차 = 1.33).

### (4) 우호적 매체 신뢰도 평가

적대적 매체 신뢰도 평가 척도에 사용한 보수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와 진보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 값을 바탕으로 우호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 척도를 계산했다. 즉, 자신을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응답한 경우, 보수매체의 신뢰도 척도의 값을 이용하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진보매체의 신뢰도 척도 값을 이용해 우호적 매체 신뢰도 평가라는 척도를 만들어 이후 분석에 사용했다(평균 = 3.78, 표준편차 = 1.27).

### (5) 적대적 매체 이용

적대적 매체 이용 척도를 만들기 위해, 우선 조선(평균 = 2.25, 표준편차 = 2.03), 동아(평균 = 1.96, 표준편차 = 1.75), 중앙일보(평균 = 2.26, 표준편차 = 2.00)를 신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용했는지 측정했다(1=전혀 읽지 않았다; 2=하루; 8=7일).<sup>5)</sup> 이후 세 매체 이용을 평균하여 보수매체 이용의 축약형 척도를 만들었다(평균 = 2.16, 표준편차 = 1.62,  $\alpha = .79$ ). 다음으로 진보매체인 한겨레(평균 = 2.22, 표준편차 = 1.95), 경향(평균

5) 조선, 동아, 중앙일보를 일주일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응답자의 수는 각각 466명, 400명, 480명이었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를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응답자의 수는 각각 458명, 399명, 465명이었다.

= 2.08, 표준편차 = 1.90), 오마이뉴스(평균 = 2.17, 표준편차 = 1.87)의 이용을 같은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고, 동일한 방법으로 축약형 척도를 만들었다(평균 = 2.16, 표준편차 = 1.71,  $\alpha = .88$ ). 이 두 수치를 바탕으로, 자신을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진보매체의 이용척도 값을,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수매체의 이용척도 값을 이용해 적대적 매체 이용이라는 척도를 만들고 이후 분석에 사용했다(평균 = 1.81, 표준편차 = 1.42).

#### (6) 우호적 매체 이용

적대적 매체 이용 척도에 사용한 보수적 매체와 진보적 매체 이용 변인을 사용해 우호적 매체의 이용 척도를 계산했다. 즉, 자신을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수매체 이용척도 값을, 진보적으로 응답한 경우, 진보매체 이용척도 값을 사용해 우호적 매체 이용 척도를 만들어 이후 분석에 사용했다(평균 = 2.51, 표준편차 = 1.81).

#### (7) 통제변인

성별, 나이, 학력, 가계수입, 정치적 관심도, 정치지식의 여섯 개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측정했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더미 코딩해 분석에 사용했고, 나이는 개방형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평균 = 43.10, 표준편차 = 12.86). 학력은 7점 척도(1=초등학교 졸업이하; 7=대학원 졸업 이상)로 측정했고(평균 = 4.65, 표준편차 = 0.89), 가계수입은 15점 척도(1=49만 원 이하; 15=1000만 원 이상)를 이용했다(평균 = 8.23, 표준편차 = 3.24, 중위값 = 9.00). 정치적 관심도는 7점 척도(1=전혀 관심 없다; 7=매우 관심 있다)의 단일 변인으로 측정했다(평균값 = 4.50, 표준편차 = 1.51). 정치지식은 정치인, 정부 구조에 관한 기본 지식을 퀴즈 형식의 네 항목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옳은 답은 1로 틀린 답은 0으로 변환한 후 합쳐 축약형 척도로 만들었다(평균 = 2.23, 표준편차 = 1.24).

## 4. 연구결과

연구가설과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기본적인 상대적 적대적 매체 지각 및 선택적 노출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했다. *t* 검증 결과(〈표 1〉 참고), 상대적 적대적 매체 지각이 예측하듯이 보수적 응답자와 진보적 응답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적대적 매체에 대해 더 강한 정파성을 지각할 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매체에 대해서 보수 및 진보 응답자 모두 정치

적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보수적 응답자들(평균 = 2.86, 표준편차 = 1.17)에 비해 진보적 응답자들(평균 = 2.17, 표준편차 = 1.18)이 보수매체의 정파성을 더 보수적이라고 인식했다( $t(1174) = 9.70, p < .001$ ). 아울러 진보 집단(평균 = 2.31, 표준편차 = 1.31)은 보수 집단(평균 = 3.58, 표준편차 = 1.33)에 비해 보수매체의 신뢰도 또한 더 낮게 평가했다( $t(1174) = 16.03, p < .001$ ). 이런 경향은 진보매체의 정파성 지각과 평가에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적 수용자들(평균 = 4.79, 표준편차 = 1.13)에 비해 보수적 수용자들(평균 = 5.01, 표준편차 = 1.29)이 진보매체의 정파성을 더 진보적으로 지각했고( $t(1174) = 2.95, p < .001$ ) 신뢰도는 더 낮게 평가했다( $t(1174) = -11.00, p < .001$ ). 선택적 노출 또한 예측했던 방향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집단(평균 = 1.93, 표준편차 = 1.45)에 비해 보수적 집단(평균 = 2.55, 표준편차 = 1.81)이 보수매체를 더 자주 사용한 반면( $t(1174) = 6.42, p < .001$ ), 진보 집단(평균 = 2.48, 표준편차 = 1.82)은 보수 집단(평균 = 1.60, 표준편차 = 1.33) 보다 진보매체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t(1174) = -8.74, p < .001$ ) 확인되었다.

표 1. 보수, 진보 수용자의 보수, 진보 매체의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와 이용의 차이

	보수적 수용자 (n = 426)	진보적 수용자 (n = 750)	t값	유의확률
보수매체 정파성 지각	2.86(1.17)	2.17(1.18)	9.70	< .001
진보매체 정파성 지각	5.01(1.29)	4.79(1.13)	2.95	< .001
보수매체 신뢰도 평가	3.58(1.33)	2.31(1.31)	16.03	< .001
진보매체 신뢰도 평가	3.08(1.23)	3.89(1.21)	-11.00	< .001
보수매체 이용	2.55(1.81)	1.93(1.45)	6.42	< .001
진보매체 이용	1.60(1.33)	2.48(1.82)	-8.74	< .001

주. 두 번째, 세 번째 열의 수치는 평균값이고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H1은 진보 수용자가 보수 수용자에 비해 적대적 매체로부터 자신의 정치성향과 반대되는 정파성을 더 강하게 지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응답자를 보수, 진보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했다. 단,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척도 수치를 그대로  $t$  검증을 통해 비교할 경우, 보수적 응답자의 적대적 매체인 진보매체의 정파성 수치가 진보적 응답자의 적대적 매체인 보수매체의 정파성 수치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 척도상의 문제가 생긴다. 각 매체의 정파성은 1(매우 보수적)에서 7(매우 진보적)의 7점 척도로 측정했기 때문에 진보적 집단의 적대적 매체인 보수매체의 정파성 수치에 비해, 보수적 집단의 적대매체인 진보매체의 정파성 수치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보수적, 진보적 응답자 각각의 적대적 매체 정파성 지각을 비교 가능한 수치로 만들기 위해서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 변인에 추가적 단계를 거쳐 수정 후 H1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진보적 응답자의 적대적 매체인 보수매체의 정파성 수치는 7점 척도의 중간 값인 4에서 뺀 수치를 사용하고, 보수적 응답자의 적대적 매체 정파성은 7점 척도로 측정된 진보매체의 정파성의 원래 수치에서 4를 뺀 값을 사용해 서로 비교 가능한 값으로 변환했다. 이 과정을 거친 적대매체의 정파성 지각 수치를 이용해 보수적 응답자 집단과 진보적 응답자 집단 간 평균값 차이를 계산하는  $t$  검증을 실시해 연구가설 1을 검증했다. 그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진보적 수용자가 적대적 매체에 대해 느끼는 정파성의 정도(평균 = 1.83, 표준편차 = 1.18)가 보수적 수용자가 적대적 매체에 느끼는 정파성(평균 = 1.01, 표준편차 = 1.29)의 정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1174) = -11.16$ ,  $p < .001$ ). 즉, 진보적 수용자가 보수매체에 대해 느끼는 보수적 정파성이 보수적 수용자가 진보매체에 대해 느끼는 진보적 정파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H1은 지지되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진보 수용자가 보수 수용자에 비해 적대적 매체 신뢰도를 더 낮게 평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H2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진보적 수용자가 적대적 매체인 보수매체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평균 = 2.31, 표준편차 = 1.31)는 보수적 수용자가 본인의 입장에서 적대적 매체인 진보매체에 대해 내린 신뢰도(평균값 = 3.08, 표준편차 = 1.23)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t(1174) = 9.95$ ,  $p < .001$ ), H2 역시 지지되었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적대적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H3a), 적대적 매체를 적게 이용할 것이며(H3b), 또한 적대적 매체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적대적 매체 이용을 적게 할 것(H3c)이라고 예측하였다. 네 번째 연구가설에서는 H3에서 예측한 적대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 그리고 이용 사이의 관계에서 보수적 집단과 진보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H3과 H4의 검증을 위해, 성별, 나이, 학력, 가계수입, 정치적 관심도, 정치지식의 여섯 개 변인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H3a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보수적 수용자 집단과 진보적 수용자 집단 모두에서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매체 신뢰도가 낮아졌다.<sup>6)</sup> 보수적 수용자 집단의 경우, 자신의 입장에서 적대적 매체인 진보적 매체의 진보적 편향을 더 크게 지각할수록 진보적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4$ ,  $p < .001$ ). 마찬가지로, 진보적

6) H1의 검증에서와는 달리, 이후 분석에서는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을 7점 척도로 측정된 변인, 즉 연구 방법에서 보고한 변인 그대로 분석에 사용했다. 하지만, H1의 검증에 사용한 중간값(4)과의 차이를 이용한 정파성 변인을 이용해도 연구 결과의 차이는 없음을 밝힌다.

수용자 집단에서는 적대적 매체인 보수매체가 더 보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지각할수록 보수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했다( $\beta = .63, p < .001$ ). 따라서 H3a는 지지되었다. H3b는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을 더 크게 지각할수록 적대적 매체를 덜 이용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분석결과 진보적 수용자 집단에서만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보수적 수용자 집단에서는 적대적 매체인 진보매체의 진보적 정파성 지각이 진보매체 이용과 관련이 없었다( $\beta = .01, n.s.$ ). 하지만, 진보적 수용자들의 경우 적대적 매체인 보수매체의 보수적 정파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보수매체 이용이 줄어들었다( $\beta = .26, p < .001$ ). 따라서, H3b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보수적 수용자 집단( $\beta = .16, p < .001$ )과 진보적 수용자 집단( $\beta = .13, p < .01$ ) 모두에서 적대적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적대적 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3c는 지지되었다.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인식이 적대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를 거쳐 적대적 매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역시 보수적 수용자 집단( $\beta = -.04, p < .01$ )과 진보적 수용자 집단( $\beta = .08, p < .05$ )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적 수용자의 경우, 진보적 매체의 진보적 편향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진보적 매체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고, 그 결과 진보매체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진보적 수용자의 경우 적대적 매체인 보수매체가 더 보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지각할수록, 보수매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보수매체 이용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적 수용자 집단의 경우, 적대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보수매체의 정파성을 크게 인지할수록 보수매체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이 적대적 매체에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H4에서는 H3에서 제시되었던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의 부적관계, 정파성 지각과 적대적 매체 이용의 부적관계 그리고 적대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와 이용 사이의 정적관계가 보수수용자보다는 진보수용자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Wald 검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과 신뢰성 사이의 관계는 예상했던 것처럼 진보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Wald = 15.704, p < .001$ ). 즉, 두 집단에서 모두 적대적인 매체의 정파성을 더 크게 지각할수록 적대적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경향은 보수적 수용자 집단에 비해, 진보적 수용자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적대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와 적대적 매체 이용 간의 정적인 관계의 경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Wald = -0.358, n.s.$ ). 즉, 두 집단 모두 적대적 매체를 덜 신뢰할수록 적대적 매체를 덜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정도에 있어 보수적, 진보적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반면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과 적대적 매체 이용 간 관계의 경우, 두 집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Wald = 4.006, p < .001$ ). 보수적 수용자 집단에서는 진보매체의 진보적 정파성 지각과 진보매체 이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진보적 수용자 집단에서는 보수매체의 보수적 정파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보수매체 이용이 줄었다. 따라서 H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2. 보수적, 진보적 수용자의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와 이용 간 관계

	보수적 집단		진보적 집단	
	$\beta$	$B(SE)$	$\beta$	$B(SE)$
<b>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b>				
성별(1=여성)	-.13	-.33(.12)**	.04	.10(.09)
나이	.18	.02(.00)***	-.02	-.00(.00)
학력	.04	.05(.06)	-.14	-.20(.05)***
가계수입	.10	.04(.02)*	.04	-.01(.01)
정치적 관심도	.19	.16(.04)***	-.13	-.11(.03)***
정치지식	.16	.17(.05)***	-.01	-.01(.04)
$R^2$	.19		.06	
<b>적대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효과</b>				
성별(1=여성)	.01	.02(.12)	-.05	-.13(.08)
나이	-.12	-.01(.01)*	.03	.00(.00)
학력	-.14	-.17(.07)**	-.02	-.03(.05)
가계수입	.03	.01(.02)	.05	.02(.01)
정치적 관심도	.09	.07(.04)	-.06	-.05(.03)
정치지식	.09	.09(.05)	-.00	-.00(.03)
적대적 매체 정파성 지각(1=매우 보수적; 7=매우 진보적)	-.24	-.23(.05)***	.63	.69(.03)***
$R^2$	.09		.41	
<b>적대적 매체 이용에 미치는 효과</b>				
성별(1=여성)	.08	.21(.13)	-.01	-.02(.10)
나이	-.16	-.02(.01)***	.04	.00(.00)
학력	-.01	-.02(.07)	.08	.14(.06)*
가계수입	-.03	-.01(.02)	.15	.11(.04)*
정치적 관심도	.23	.19(.04)***	.22	.22(.04)***
정치지식	.02	.02(.06)	.09	.11(.04)*
적대적 매체 정파성 지각(1=매우 보수적; 7=매우 진보적)	.01	.01(.05)	.26	.31(.05)***
적대적 매체 신뢰도	.16	.17(.05)***	.13	.15(.05)**
$R^2$	.11		.20	
<b>매개효과</b>				
적대적 매체 정파성 지각 → 신뢰도 평가 → 매체 이용	-.04	-.04(.01)**	.08	.10(.03)*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연구문제 1>은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에 있어 진보적 수용자와 보수적 수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연구문제의 분석은 H1의 검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진보적 수용자가 우호적 매체에 대해 느끼는 정파성의 정도(평균 = .79, 표준편차 = 1.13)가 보수적 수용자가 우호적 매체에 느끼는 정파성(평균 = 1.14, 표준편차 = 1.17)의 정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1174) = 5.03, p < .001$ ). 즉, 보수적 수용자가 보수매체에 대해 느끼는 보수적 정파성이 진보적 수용자가 진보매체에 대해 느끼는 진보적 정파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우호적 매체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있어서, 진보 수용자와 보수 수용자 간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다.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보적 수용자가 우호적 매체인 진보매체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평균 = 3.89, 표준편차 = 1.21)는 보수적 수용자가 우호적 매체인 보수매체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평균 = 3.58, 표준편차 = 1.33)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t(1174) = -4.06, p < .001$ ).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신뢰도 평가, 그리고 매체 이용 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문한 <연구문제 3>과 그 관계가 보수적 수용자와 진보적 수용자 간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연구문제 4>에 대한 응답을 찾기 위해 H3, H4의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분석과 Wald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정리했다.

표 3. 보수적, 진보적 수용자의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와 이용 간 관계

	보수적 집단		진보적 집단	
	$\beta$	$B(SE)$	$\beta$	$B(SE)$
<b>우호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b>				
성별(1=여성)	.12	.29(.12)*	-.08	-.19(.08)*
나이	-.09	-.01(.00)	.13	.01(.00)***
학력	-.11	-.13(.06)*	.16	.21(.05)***
가계수입	.03	.01(.02)	.04	.02(.01)
정치적 관심도	-.03	-.02(.04)	.13	.10(.03)***
정치지식	.00	.00(.05)	.03	.03(.03)
$R^2$	.04		.10	
<b>우호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에 미치는 효과</b>				
성별(1=여성)	.02	.06(.12)	-.03	-.07(.09)
나이	.15	.02(.01)***	.16	.02(.00)***
학력	-.02	-.03(.07)	-.03	-.04(.05)
가계수입	.04	.02(.02)	.05	.02(.01)
정치적 관심도	.22	.18(.04)***	.24	.20(.03)***
정치지식	.13	.14(.05)**	.04	.04(.04)
우호적 매체 정파성 지각(1=매우 보수적; 7=매우 진보적)	.21	.24(.05)***	.02	.03(.04)
$R^2$	.16		.11	

	보수적 집단		진보적 집단	
	$\beta$	$B(SE)$	$\beta$	$B(SE)$
<b>우호적 매체 이용에 미치는 효과</b>				
성별(1=여성)	-.03	-.12(.17)	-.01	-.03(.12)
나이	.04	.01(.01)	.03	.01(.01)
학력	-.02	-.03(.09)	.05	.11(.07)
가계수입	.15	.08(.03)**	.00	.00(.02)
정치적 관심도	.28	.31(.06)***	.27	.33(.05)***
정치지식	.09	.13(.07)	.11	.16(.05)**
우호적 매체 정파성 지각(1=매우 보수적; 7=매우 진보적)	.04	.06(.07)	.15	.24(.05)***
우호적 매체 신뢰도	.09	.12(.07)	.20	.30(.05)***
$R^2$	.17		.25	
<b>매개효과</b>				
우호적 매체 정파성 지각 → 신뢰도 평가 → 매체 이용	.02	.03(.02)	.01	.01(.01)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연구문제 3〉은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 그리고 이용 간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했다. 분석 결과, 보수적 수용자 집단의 경우, 자신의 입장에서 우호적 매체인 보수매체의 보수성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보수매체를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1, p < .001$ ). 반면, 진보적 수용자 집단의 경우, 우호적 매체인 진보매체의 진보적 정파성 지각과 진보매체 신뢰도 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eta = .02, n.s.$ ).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과 우호적 매체이용 간 관계의 경우, 보수적 응답자 집단에서 보수매체의 보수적 정파성 지각과 보수매체 이용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beta = .04, n.s.$ ), 진보적 응답자 집단에서는 우호적 매체인 진보매체가 강한 진보성을 띤다고 지각할수록 진보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eta = .15, p < .001$ ). 우호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와 우호적 매체이용 간 관계 분석 결과, 보수적 수용자 집단에서는 보수적 매체의 신뢰도 평가와 보수매체 이용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은 반면( $\beta = .09, n.s.$ ), 진보적 수용자들은 우호적 매체(즉, 진보매체)를 신뢰할수록 매체이용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0, p < .001$ ). 종합하자면, 보수적 수용자 집단에서 보수매체의 정파성을 보수적으로 지각할수록, 보수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매체 신뢰도가 보수매체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보수적 수용자의 경우, 우호적 매체인 보수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이 보수매체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진보적 수용자 집단에서는 진보매체의 진보적 정파성 지각과 진보매체 신뢰성과의 관계는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진보매체의 신뢰성은 진보매체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진보적 수용자가 진보매체의 진보적 정파성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진보매체를 더 많이 이용했다.

즉, 진보적 수용자 집단에서는 우호적 매체인 진보매체의 자신과 같은 방향의 정파성 지각과 진보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진보매체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에서는 보수적 수용자 집단과 진보적 수용자 집단에서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 그리고 이용 사이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물었다. 이에 답하기 위해 Wald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과 신뢰성 사이의 관계( $Wald = -3.250, p < .001$ ),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과 우호적 매체 이용 간 관계( $Wald = 2.197, p < .001$ ), 그리고 우호적 매체의 신뢰도와 우호적 매체 이용의 관계( $Wald = 2.049, p < .001$ )에서 모두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문제 3>의 결과 서술에서 언급되었던 보수적 집단과 진보적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논의

다매체 정파언론 환경에서 뉴스 수용자의 매체 정파성 인식, 평가, 이용의 특성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정파언론 환경에서 대립적 경쟁 관계에 있는 정파매체에 대한 지각과 평가, 이용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보수매체와 진보매체 간의 구조적 비대칭성과 이에 따른 매체비평 담론의 불균형을 한국 정파매체 환경의 특징으로 파악하고, 뉴스 이용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우호적 매체와 적대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 신뢰도 평가, 이용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보수 수용자와 진보 수용자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적대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신뢰도 평가에 있어, 보수 집단에 비해 진보 집단이 적대적 정파성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신뢰도는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적대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은 해당 매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이어지고,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수록 매체를 적게 이용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보수적 수용자 집단보다 진보적 수용자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은 진보적 수용자 집단에서만 적대적 매체의 이용과 유의미한 직접적 관계를 보였다. 즉, 진보적 수용자의 경우, 자기 입장에서 적대적 매체인 보수매체의 보수적 정파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보수매체 이용을 적게 했다. 하지만 보수적 수용자의 경우, 적대적 매체의 정파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뿐 아니라, 적대적 매체인 진보매체에 대한 진보적 정파성 지각이 진보매체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 신뢰도, 이용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진보적 수용자에 비해 보수적 수용자가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을 더 크게 지각했지만, 우호적 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보수집단에 비해 진보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보수적 수용자 집단의 경우, 우호적 매체의 정파성 지각이 매체 신뢰도와 부적인 관계를 맺었고, 우호적 매체의 신뢰도는 매체 이용과 관계가 없었다. 반면, 진보적 수용자 집단의 경우, 우호적인 진보매체의 정파성 지각과 신뢰도는 관련이 없었지만, 신뢰도와 진보매체 이용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또, 진보적 수용자가 진보매체의 진보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진보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결과는 적대적 매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매체 이용의 직접적 관계가 보수적 수용자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진보적 집단에서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파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환경적 요인과 정파성 지각의 태도적, 행동적 후속 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적 논의거리를 제공한다. 첫째, 매체 정파성 지각은 수용자 정파성의 유무와 세기뿐만 아니라 진보-보수 같은 '방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정파언론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이 수용자 정파성의 방향에 따른 매체 정파성 지각의 차이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확인된 수용자 정파성에 따른 적대적-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의 차이는 보수-진보 매체 간 구조적 비대칭성과 매체비판 담론의 불균형이 뚜렷한 한국의 정파매체 환경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적대적-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은 매체 신뢰와 같은 매체평가 차원 및 선택적 노출과 같은 매체 이용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정파성 지각의 후속 효과는 진보-보수 수용자 집단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적대적-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과 신뢰도 평가, 이용의 관계가 진보 집단에서 더 강하고 일관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적 수용자가 매체 정파성을 매체평가와 이용을 위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반면 보수층에선 매체 정파성이 매체평가와 이용에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향력만 행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정파언론 환경의 구조적, 담론적 특수성 때문에 정파성 지각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지각을 매체 평가와 이용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 단서 습득의 기회와 동기가 두 집단에 차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진보매체 비판 보다 보수매체 비판이 매체비평 담론 공간에서 더 많이 유통될 때, 진보적 수용자가 매체 정파성 지각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 획득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보수매체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진보적 수용자들 사이에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더 크다고 여겨지는 보수매체의 편향성과 부정적 영향력을 경계하고 이를 선택적 매체 접근과 회피로 연결하려는 동기 또한

더 강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편향된 언론의 악영향을 정치 참여를 통해 상쇄하려는 동기(Rojas, 2010)가 매체 선택의 영역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보고된 매체 태도와 이용에 있어 집단 간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보도 공정성 평가에 있어 진보적 수용자들이 보수적 수용자들에 비해 적대적 매체는 더 부정적으로, 우호적 매체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이종혁, 2015), 문제인 후보 지지자들이 언론 편향성을 더 크게 지각하며(이유민·정세훈·민영, 2013), 진보적이라고 추정된 트위터 이용자들이 진보 언론사의 트위터 계정을 중복 팔로우하는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더 강하다(황유선, 201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의 특수한 정파언론 맥락에서 진보-보수 수용자 집단의 언론 태도는 상이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이는 매체에 대한 선택적 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보수매체의 정파성 인식과 신뢰도 평가 사이의 부정적 관계는 언론시장에서 보수매체가 우위를 점하지만, 매체비판이라는 담론 경쟁의 장에서는 보수매체가 열세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매체의 정치 성향이나 논조를 지칭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진보적’이라는 인식에 비해 매체 신뢰도 평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수용자 집단에서 보수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이 매체 신뢰도 평가와 부정적 관계를 맺는다는 예상 밖의 결과는 보수적 수용자조차 매체의 보수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진보적,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수용자들에게 단순히 대립하는 매체 정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매체평가를 발생시키는 가치 판단적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적’이라는 지각이 ‘진보적’이라는 인식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일으킨다면, 그 이유는 다각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의 보수매체를 겨냥한 비판이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고, 보수매체의 구조적 비교우위 때문에 수용자의 심리적 방어기제가 보수매체 평가 때 더 활성화되었을 수도 있다. 또는 진보매체가 보수매체 보다 더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거나, 적어도 덜 나쁜 저널리즘을 실천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에 주어진 규범적 역할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는 정파매체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정파적 수용자의 인지적 편향성이나 의견지도자들의 정치 공세 또는 전략의 결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뢰성, 공정성, 불편부당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매체 평가는 정파매체가 제공하는 뉴스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고찰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언론의 주요 과제라 할 언론 신뢰 회복이 보수매체에 더 힘든 과제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통념적인 매체 정파성은 수용자가 개별 기사의 정파성이



나 편향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Ariyanto et al., 2007; Baum & Gussin, 2007), 뉴스의 출처가 보수매체라는 지각만으로도 기사의 품질과 관계없이 해당 기사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라는 매체의 정파적 정체성이 촉발할 수 있는 부정적 평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보수언론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의 정파언론 환경의 특수한 맥락에서, 적대적-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 평가, 이용의 관계가 수용자 정파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선 진보-보수 수용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보수매체의 구조적 우위와 이에 따른 보수매체에 집중된 비판적 매체담론이라는 언론환경의 특수성에 근거해 설명했다. 그러나 두 정파 집단 간 차이는 이와 같은 정파매체 구조와 문화가 아닌 정치 상황적(situational)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기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론조사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를 예상했다. 진보진영에 불리한 여론 분위기는 진보적 유권자들 사이에서 외집단 정파매체에 대한 강한 적대적 지각과 부정적 평가를 일으킨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외집단에 비해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힘이 약하다고 느낄 때 적대적 지각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Hartman & Tanis, 2013)는 이와 같은 대안적 설명을 뒷받침한다. 보수적 수용자에게 불리한 여론 환경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재확인되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이후 전개된 보수 정권 대통령 탄핵과 진보정부 출범으로 이어진 정치적 격변을 감안하면 여론 환경이 진보 우위로 전환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보수 및 진보 수용자 간 매체 태도의 차이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전제된 보수-진보 언론 간의 힘의 불균형도 수용자 지각의 측면에서는 변화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의 근거로 우선 대통령의 정치 스캔들이 공적 사안으로 부상하는데 통념적인 진보매체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권교체 이후 경영진을 포함한 공영매체의 인적 구성 변화도 한국 언론의 전반적인 정파성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수적 수용자의 경우 적대적인 진보매체의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고 그 결과 적대적 정파성 또한 강하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파언론 구조와 매체비판 담론의 비대칭성을 한국적 특수성으로 보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만든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는 더 탐구되어야 한다. 또 정파언론 환경의 특수성과 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정파적 수용자의 다양한 매체 이용 패턴의 관계도 밝힐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수 수용자에 비해 진보 수용자가 적대적 매체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

더 민주화와 함께 형성, 심화된 정파언론 환경이 수용자의 매체 정파성 지각과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경오’ 담론으로 요약되는 우호적 진보매체를 향한 일부 진보 수용자의 비판적 태도나 주류 정파매체보다 더 강한 정파성을 드러내는 대안적 정파매체의 부상 등을 고려할 때, 정파매체 지형의 역동적 변화와 이에 따른 수용자들의 매체 지각 및 이용의 변화 양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설문회사의 패널 할당표집에 의존한 대표성이 없는 자료 분석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설문 패널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70대 이상 노인집단의 정치성향, 매체 이용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와 매체의 정파성을 구성하는 정파성의 ‘내용’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와 매체의 정파성을 진보-보수의 단일 차원으로 보았지만, 개인의 정치이념성향은 다양한 이념적 차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개념이라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Jost, Federico, & Napier, 2009). 마찬가지로 같은 진영에 속한 정파매체 사이에서도 이념적 차원에 따라 정파성이 기사를 통해 다르게 발현될 수도 있다(최현주, 2010). 따라서 다차원적인 수용자 정파성이 잠재적으로 상이한 정파성을 재현할 수 있는 정파매체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정파성 지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319-421.
- 김경모·이승수 (2018). 뉴스 수용자의 지각 편향과 뉴스 공정성 평가: 언론 신뢰, 메시지 편향성, 자기범주화, 자기-고양영의 영향력 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14권 3호, 145-198.
- 김경모·이승수·김상정 (2016). 정파적 수용자의 적대적 매체 지각과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자기 범주화와 정교화 가능성의 이론적 접점. <커뮤니케이션 이론>, 12권 3호, 4-48.
- 김경희·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361-387.
- 김수정 (2016). <시민 언론 운동>.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남시욱 (2009). 언론의 위기와 직업언론인의 책무. <관훈저널>, 통권 113호, 89-109.
- 이건호·고홍석 (2009). 취재원 활용을 통해 살펴본 한국 신문의 보도시각 고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기사에 나타난 취재원 신뢰도와 유인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347-369.
- 이유민·정세훈·민영 (2013). 적대적 매체 지각과 제삼자 지각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 대선 투표 참여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5호, 346-367.
- 이종혁 (2015). 언론 보도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우호적, 중도적, 적대적 매체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7-36.
- 최현주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6개 종합일간지의 3개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 성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2호, 58-79.
- 황유선 (2013). 선택적 노출 행위를 통해 바라본 트위터 공간의 이념적 양극화.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399-426.
- Arceneaux, K., Johnson, M., & Murphy, C. (2012). Polarized political communication, oppositional media hostility, and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Politics*, 74(1), 174 - 186.
- Ariyanto, A., Hornsey, M. J., & Gallois, C. (2007). Group allegiances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perceiver and the source.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 266-279.
- Arpan, L. A., & Raney, A. A. (2003).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news source and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 265-281.

- Banning, S.A. (2006). Third-person effects on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3, 785-800.
- Barnidge, M., Gunther, A.C., Kim, J., Hong, Y., Perryman, M., Tay, S.K. & Knisely, S. (2017). Politically motivated selective exposure and perceived media bias. *Communication Research*, p.0093650217713066.
- Baum, M. A., & Gussin, P. (2007). In the eye of the beholder: How information shortcuts shape individual perceptions of bias in the media.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 1-31.
- Coe, K., Tewksbury, D., Bond, B. J., Drogos, K. L., Porter, R. W., Yahn, A., & Zhang, Y. (2008). Hostile news: Partisan use and perceptions of cable news programm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8, 201-219.
- Choi, J., Yang, M., & Chang, J. J. (2009). Elaboration of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The roles of involvement, media skepticism, congruency of perceived media influence, and perceived opinion climate. *Communication Research*, 36, 54-75.
- Garrett, R. K., & Stroud, N. J. (2014). Partisan paths to exposure diversity: Differences in pro- and counter -attitudinal news consump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4, 680-701.
- Goldman, S. K. Mutz, D. C. (2011). The friendly media phenomenon: A cross-national analysis of cross-cutting exposure. *Political Communication*, 28, 42-66.
- Gunther, A., Christen, C. T., Liebhart, J. L., & Chia, S. C.-Y. (2001). Congenial public, contrary press, and biased estimates of the climate of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65, 295 - 320.
- Gunther, A. C., Edgerly, S., Akin, H., & Broesch, J. A. (2012). Partisan evaluation of partisan inform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9(4), 439-457.
- Hallin, D. C.,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mann, T., & Tanis, M. (2013). Examining the hostile media effect as an intergroup phenomenon: The role of ingroup identification and status. *Journal of Communication*, 63, 535-555.
- Hoffner, C., & Rehkoff, R. A. (2011). Young voters' responses to the 2004 U.S. presidential

- election: Social identity, perceived media Influence, and behavioral outcomes. *Journal of Communication*, 61, 732-757.
- Iyengar, S., & Hahn, K. S.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 19-39.
- Jones, D. A. (2004). Why Americans don't trust the media: A preliminary analysis.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9(2), 60-75.
- Jost, J. T., Federico, C. M., & Napier, J. L.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307-337.
- Kiousis, S. (2001). Public trust or mistrust? Perceptions of media credibility in the information age.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4, 381 - 403.
- Ladd, J. (2012). *Why Americans hate the media and how it matter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e, T.-T. (2005). The liberal media myth revisited: An examination of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media bia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9, 43-64.
- Oh, H. J., Park, J., & Wanta, W. (2011). Exploring factors in the hostile media perception: Partisanship, electoral engagement, and media use pattern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8, 40-54.
- Reid, S. A. (2012). A self-categorization explanation for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62, 381-389.
- Rimmer, T., & Weaver, D. (1987). Different questions, different answers? *Media use and media credibility*. *Journalism Quarterly*, 64, 28 - 36.
- Rojas, H. (2010). Corrective actions in the public sphere: How perceptions of media and media effects shape political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 343-363.
- Stroud, N. J. (2011).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sfati, Y., & Cappella, J. N. (2003). Do people watch what they do not trust?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news media skepticism and exposure. *Communication Research*, 30(5), 504-529.
- Tsfati, Y., & Cohen, J. (2005). Democratic consequences of hostile media perceptions: The

- case of Gaza settlers.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0(4), 28 - 51.
- Vallone, R. P., Ross, L., & Lepper, M. R. (1985).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577-585.
- Watts, M. D., Domke, D., Shah, D. V., & Fan, D. P. (1999). Elite cues and media bias in presidential campaigns: Explaining public perceptions of a liberal press. *Communication Research*, 26, 144-175.

최초 투고일 2019년 2월 8일  
게재 확정일 2019년 3월 28일  
논문 수정일 2019년 4월 4일

# Comparing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Audiences in their Partisan Perception, Trust and Use of Hostile and Friendly News Media

**Ki Deuk Hyun**

Associate Professor, Akita International University

**Mihye Seo**

Associat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Partisan media system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predominance of conservative media in media market and public sphere, and according critical media discourse about powerful conservative media. This study examines how this structural and discursive asymmetry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relates to partisan audiences' perception, trust and use of hostile and friendly partisan news media. The analyses of survey data showed that compared to conservative audiences, progressive audiences perceived stronger disagreeable partisanship and had less trust of hostile media. At the same time, only in the progressive group, stronger disagreeable partisan perception of hostile media was direc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use of hostile media. In addition, agreeable partisan perception and trust of friendly media showe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friendly media use among progressive audiences. However, the same patterns were not found in the conservative group. The findings imply that the unique partisan media environment of Korea can cause partisan differentiation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audiences in media attitudes and media use.

**Keywords:** partisan media, partisan audience, media trust, hostile media perception, selective exposure